뚝 끊긴 발길 '도심 썰렁'… 불꺼진 유흥가 '암흑의 밤'

'광주 100시간 멈춤' 현장 보니

코로나 확산 방지 시민 이동 자제
구시청사거리·상무지구 등 적막
대목 놓친 가게들 한숨만 가득
일부 배달 가게 문 열었지만 한산

10월 도심…그리고 12월

광주시 동구 구시청의 한 유명주점 근처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지난 10월 31일 밤 핼러윈 데이를 즐기기 위해 분장을 한 젊은이들로 가득 찼지만, 100시간 멈춤이 시행된 지난 5일 밤 같은 장소에서는 사람을 찾아볼 순 없었고 가게도 불만 켜진채 문은 닫혀 있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주말 광주 도심은 썰렁했다. 수능시험이 끝난 3일부터 몰려나온 고 3 수험생들로 발 디딜 틈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한 광주시의 '이동 멈춤' 요청을 잘 따르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영업이 중단된데다, 음식점과 각종 술집들도 밤 9시 이후 문을 닫도록 한 광주시의 '100시간 멈춤' 지침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광주시는 수능 이후 광주 도심에 수험생들이 몰릴 것을 우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3일 새벽 0시부터 6일까지 4일간 '100시간 멈춤'지침을 전격 시행했다.

이 때문인지 지난 5일 밤 둘러본 광주 대표 유흥가인 동구 구시청 사거리 일대와 상무지구는 텅 빈 모습을 연출했다.

젊은층들로 주말이면 북적대는 상무지구와 동구 구시청 일대는 대부분 음식점·술집 식당이 문을 닫고 네온사인을 끄면서 '어둠의 도시'(?)를 방불케 했다.

코로나에도, 마스크를 턱에다 걸친 턱스크를 하거나 코를 내놓은 마스크를 걸친 젊은층들로 북적댔던 헌팅포차·감성포차 등 술집들도 문을 닫아 썰렁했다.

고작 편의점과 배달·포장 전문 식당 몇 곳만 영업을 하고 있었고 그나마도 찾는 손님이 없어 아르바이트생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동구 구시청 인근에서 만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6개월동안 일했는데, 밤 9시 이후 이렇게 찾는 손님이 없긴 처음" 이라며 "손님이 없어 편하긴 하지만 월급이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동구지역 한 족발집 주인은 "가게를 닫지는 못해 문을 열긴 했는데 3시간 동안 배달 주문은 5건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인근 해장국집 주인도 "포장 손님보다 매장을 찾는 손님이 많은데 9시 이후 장사를 할 수 없어 타격이 심하다"면서 "수능 끝난 이 때가 대목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한탄했다.

서구 상무지구 일대도 멈춰섰다. 고막이 터질 듯한 소리로 거리를 들썩거리게 했던 음악 소리가 꺼졌고 화려한 간판·네온사인은 사라졌다.

음식 배달 오토바이만 오갈 뿐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할 정도로 따닥따닥 붙어있던 헌팅포차 앞 대기행렬도, 술을 먹고 귀가하려는 손님을 태우려고 줄 서 있던 택시들도 모습을 감췄다.

치평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여·58)씨는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니 돌아가는 손님들이 많았다"면서 "밤 9시에서 밤 12시로 영업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술 손님 입장에서 밤 12시까지 먹는 것이나 새벽 2시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 책상머리에서나 정하는 기준일 뿐"이라고 말했다. 밤 9시~10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면 밤 12시나 새벽 2시를 제한하는 것은 방역 강화에 차이가 없으니 생색내기식으로 방역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무능·무책임·무대응…한수원 불신 높다

부실시공·허술한 운영에 불법하도급까지…원전 관리 능력 의문

한빛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한수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다. 원전 관리·운영 과정의 무능·무책임함을 드러내고 있는데다,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한 대응 능력도 부실해 이대로 원전 관리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불신도 커지고 있다.

◇양파껍질처럼…부실시공·관리부실에 불법하도급 의혹까지=한빛원전 5호기 정비 과정에서 시공 불량·관리 부실에 이어 불법으로 공인검사원(ANI)에게 하도급을 줘 검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6일 한빛원전 민간감시센터 등에 따르면 한빛원전측은 5호기에 대한 제 13차 계획예방정비(2020년 4월~10월)를 위해 특정 공인검사기관과 계약을 맺었는데 해당 기관이 직접 검사를 맡는 게 아니라 개인 검사원에게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인검사원은 원전 주요기기 제작 및 주요 용접 등 공정에서 독립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해 해당 작업의 불량 여부를 판단하거나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한빛원전은 독립성을 위해 공인검사기관 계약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3무(무능·무책임·무대응) 한수원=한빛원전측은 이번 5호기 문제 발생 과정에서 부실한 원전 운영 능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수원은 지난 7월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J-Weld 용접부 건전성확인 보고'(이하 검증보고서)를 내놓을 때만 해도 원자로 상부헤드 관통관 1곳(69번)에서만 용접이 잘못됐고 나머진 '정상'이라는 발표를 했었다. 원안위는 이를 뒤집어 69번 관통관 이외에도 39번의 용접봉이 잘못된 사실을 밝혀냈다. 원안위 조사를 통해 한수원의 부실한 점검, 허술한 관리 능력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데도, 기존 잘못된 조사 결과를 '정상'인 것처럼 내놓은 책임을 인정하거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지역민들에 대한 사과 등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검찰에 시공사를 고발, 시공사에게만 떠넘기는 행태까지 보였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이같은 점을 들어 "한수원이 용역계약의 주체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언급없이) 시공사를 계약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책임 전가,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이번 5호기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묵살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수원은 애초 주민들과 원자로 정비과정에서 영상을 촬영, 보관하겠다고 했지만 5호기 용접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는데 필요한 영상은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호남권공동대응 관계자는 "한수원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시공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한수원은 핵발전 사업자로서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강제추행·금품수수 기강 풀린 전남경찰

연말 비위 적발 잇따라

전남지역 경찰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면서 연말 공직 기강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청은 무안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A 경감은 지난 1일 밤 자신의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감을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기각했다.

전남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조사해 징계하겠는 방침이다.

나주에서도 경찰 중견 간부가 사건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진정이 접수돼 감찰이 진행 중이다.

전남청은 최근 가정폭력 사건 조사 과정에서 나주경찰서 B 경위가 관련자에게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담당 경위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에게 빌린 돈일 뿐 청탁성과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부적격 조합원 모집 묵인·불법 현수막 과태료까지 떠안아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 관계자들 유죄

부적격 조합원 모집을 묵인하는가 하면, 계약과 다르게 용역업체들이 지불해야할 불법 현수막 과태료까지 떠안아 조합에 손해를 끼친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이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운암산 황계마을 전 지역주택조합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분양대행사 대표 C·D씨도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B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분양대행사들이 부적격 세대를 모집해 수수료를 청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대행사의 불법 현수막 과태료를 조합 부담으로 떠안게 해 조합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5년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423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2016년 3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A씨는 1차 분양대행사가 모집한 221세대 중 13세대가 부적격 세대인 줄 알면서도 세대당 분양수수료 1430만원을 받도록 했다. B씨도 분양대행사가 부적격 세대인 2세대 모집에 따른 수수료 청구를 묵인했다.

이들은 2차 분양대행사가 모집한 조합원 20세대 중 12세대가 부적격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세대당 77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행사가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때문에 부과받은 과태료 2억6000만원이 부과되자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내거나 회사 비용으로 납부한 뒤 조합으로부터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조합에 손해를 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B씨는 C·D씨와 공모, 조합 재물을 가로채고 조합에 손실을 끼쳤고 범행 경위·방법, 관여 정도, 피해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A씨는 6억원, B씨는 3억7000만원의 손해를 조합에 입혔고 결국 조합원들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대지/임야/전답]					
2020타경 1196	1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산72 2단보	임야	5,949,000 5,949,000	
	2	동소 산57 3432㎡[공유자지분중30/90[단,이광임,이광단,이광식,이광례,이영기,이경수,이항기,이혜란,이영란의각지분3/90전부,이양금,이녹금,이성찬의각지분1/90전부]	임야	4,690,400 4,690,4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에한함,연고미상분묘수기소재
	3	동소 79-1 224㎡[공유자지분중30/90[단,이광임,이광단,이광식,이광례,이영기,이경수,이항기,이혜란,이영란의각지분3/90전부,이양금,이녹금,이성찬의각지분1/90전부.제시외건물매각제외]	전	896,040 896,04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에한함.농지취득자격증명요
	4	동소 산146-1 1659㎡	임야	4,313,400 4,313,400	
2020타경 50709	1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1314 1435㎡[공유자지분 중 공유자조경일1/6지분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6,458,400 6,458,4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에한함
	2	동소 1339 1183㎡[공유자지분중공유자조경일1/6지분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3,549,600 3,549,6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에한함
	3	동소 1343 221㎡[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2,690,550 2,690,55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에한함
		동소 1343-1 606㎡[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동소 1343-2 111㎡[물건번호3:[공유자지분중공유자조경일1/6지분전부]	도로		
	4	동소 1345 754㎡[공유자지분중공유자조경일1/6지분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2,262,600 2,262,6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에한함
[기타]					
2020타경 1233	1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258 469㎡ 제시외 창고등 30.6㎡	대	21,756,500 21,756,5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제시외건물중제시외1-2[ㄴ]건축물대장존재하나미등기건물
		완도군 금당면 금당해변로133번길 14 156.33㎡[공유자이영기1/3지분전부.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할수없음,현황창고]	해태종합처리장		
2020타경 3406	1	선적항:진도군 고군면 선박의종류와명칭:동력선 신성호 어선번호:9502572-6468206 선체재질:FRP 총톤수:2.45 기관의 종류와 마력및대수:선박용디젤 기관 139.000 마력 1대 추진기의 종류와 수:나선일체식 추진기 1기 제시외 크레인	선박	5,500,000 5,500,000	보관장소:대성선박[전남진도군고군면원포리회관앞해상.진수년월일:1993.12.12
2020타경 3680	1	선적항:완도군 약산면 선박의종류와명칭:동력선 남해호 어선번호:1103044-6468905 선체재질:FRP 총톤수:4.99 기관의 종류와 마력및대수:가솔린선외기 기관 300.000마력 1대 추진기의 종류와 수:나선기관일체식 추진기 1기	선박	50,407,850 50,407,850	보관장소:㈜와이제이마린[전남완도군완도읍죽청리선착장앞.진수년월일:2011.3.11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0. 12. 21.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0. 12. 28.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조길호